

말토막이 적용 범위인 음운 규칙들

이호영(부산수산대 국어국문학과)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관형형 어미 ‘-(으)르’ 뒤에서의 경음화 |
| 2. 연음 규칙 | 5. 튀김소리 되기 |
| 3. 음성학적 단모음화 | 6. 뱃숨말 |

<Abstract>

Some Phonological Rules Whose Domain is the Rhythm Unit

Lee, Ho-Young (National Fisheries Univ. of Pusan)

Within the framework of prosodic phonology(or the theory of phonology-syntax connection), the rhythm unit is not regarded as a domain of phonological rules. But I argue in this paper that the rhythm unit functions as a domain of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I discuss five phonological rules whose domain of application is the rhythm unit.

1. 머리말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국어의 이완 장애음 /ㅂ, ㄷ, ㄱ, ㅈ/은 /ㅎ/의 앞이나 뒤에서 격음화되어 /ㅃ, ㄸ, ㄺ, ㅉ/로 발음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허응 1982, H.Y.Kim 1990 등 참조).

다음의 예들에서 보듯이 격음화 규칙은 낱말 내부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낱말과 낱말이 이어 나올 때에도 두 낱말이 하나의 말토크(rhythm unit)으로 발음되면 격음화 규칙은 낱말 경계를 넘어 적용된다.

- (1) ㄱ. 범학[버팍], 각하[가카], 국회[구궤]
 농고[노코], 농지[노치], 남다[나타]
 앉히다[안치다], 굳히다[구치다]
 만행[마형], 핵확산[해확싼], 문학혁명[문하경명]
 ㄴ. 꽃 향기[꼬탕기], 꽃 한 송이[꼬탄송이], 낮 한 때[나탄때]

그러나 낱말과 낱말이 이어 나올 때 이완 장애음과 /ㅎ/ 사이에 말토크 경계(rhythm unit boundary)나 말마디 경계(intonation phrase boundary)가 부과되면 격음화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ㄱ. 이완 장애음과 /ㅎ/ 사이에 말토크 경계가 부과될 때:
 꽃/한 송이[꼰 한송이],¹⁾ 낮/한 때[날 한때]
 칠수네 집/화장실[집 화장실], 방송국/행사[방송국 행사]
 ㄴ. 이완 장애음과 /ㅎ/ 사이에 말마디 경계가 부과될 때:
 아름다운 무궁화꽃//한국의 국화입니다.[무궁화꼰 한구께]

따라서 우리는 말토크가 격음화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생성 음운론에서는 대부분의 음운 규칙의 적용 범위가 단어인 것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에 규칙의 적용 범위도 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발달하기 시작한 운율 음운론(prosodic phonology)²⁾에서는 낱말보다 더 작은 운율 단위(들)과 낱말보다 더 큰 운율 단위(들)이 음운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따라서 모든 규칙에 적용 범위를 명시하게 되었다.

운율 음운론에서는 음운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작용하는 음운 단위로서 음절, 음보(foot), 음운 단어(phonological word), 음운구(phonological phrase), 억양구(intonation phrase), 발화체(utterance) 등을 설정하는데, 말토크는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인정되

1) 이 논문에서 말토크 경계는 '/'로 표기하고, 말마디 경계는 '//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운율 음운론은 Selkirk(1978, 1980), Nespor and Vogel(1982, 1986), Hayes(1989), Inkelas and Zec(1990) 등에 의해 발달되었다. 음운 규칙의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음운론과 통사론의 상호 작용도 운율 음운론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격음화 현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국어에서는 명백히 말토막이 음운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국어에서 말토막을 적용 범위로 하는 음운 규칙들을 자세히 논의하고, 말토막도 음운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2. 연음 규칙

국어의 받침은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어 나올 때 다음 음절의 음절 머리로 발음된다. 이 현상을 연음 규칙이라 하는데, 연음 규칙은 말토막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연음 규칙은 낱말 내부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며, 낱말과 낱말이 이어 나올 때에도 두 낱말이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면 연음 규칙은 낱말 경계를 넘어 적용된다.

- (3) ㄱ. 색인[새긴], 학연[하건],
 걸웃[거돋], 헛웃음[허두슴], 간염[가념]
 값어치[가버치], 값없다[가볍따], 먹이다[머기다]
 ㄴ. 밥이[바비], 무릎을[무르플], 기슭에서[기슬게서], 값이[갑씨]
 옷 안에[오단에], 발 아래[바다래], 예쁜 아기[예쁘나기]

그러나 받침과 모음이나 반모음 사이에 말토막 경계나 말마디 경계가 부과되면 연음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ㄱ. 옷/안에[은 아네], 발/아래[발 아래], 예쁜/아기[예쁜 아기]
 나를/안다고 하지 마.[안다고]
 ㄴ. 철수는/아주/잘 아는/아저씨를 만났다.[아주, 자라는, 아저씨]

3. 음성학적 단모음화

국어의 기저 장모음은 비약센트 음절에서, 즉 말토막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단모음화된다(H.Y.Lee 1990, 이호영 1992). 이 현상을 음성학적 단모음화라고 하는데, 음성학적 단모음화도 말토막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결합력이 약한 복합어들 중에는 둘째 형태소의 첫 음절에 기저 장모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복합어들이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면 음성학적 단모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둘째 형태소의 기저 장모음이 단모음화되지만, 두 개의 말토막으로 발음되면 단모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감들다[감:들다]/[감:들:다], 뛰놀다[뛰놀다]/[뛰놀:다]
 꽃구경[꽃:구경]/[꽃:구:경], 까치설날[까:치설날]/[까:치설:날]
 세계대전[세:계대전]/[세:계대:전], 가정방문[가정방문]/[가정방:문]

낱말과 낱말이 이어 나올 때에도 두 낱말이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면 뒷 낱말의 기저 장모음은 단모음화되며, 낱말 사이에 말토막 경계나 말마디 경계가 부과되면 뒷 낱말의 기저 장모음은 장모음으로 실현된다.

- (6) 한 사람[한:사람]/[한 사:람], 새 그림[새그림]/[새 그:림]
 예쁜 그림[예:쁜그림]/[예:쁜 그:림], 더 많이[더마니]/[더 마:니]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화:가가 그:리를 그린다]/
 [화:가가 그:리를 그:린다]

4.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

국어의 이완 장애음 /ㅂ, ㄷ, ㄱ, ㅅ, ㅈ/은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 경음화되어 /ㅃ, ㄸ, ㄲ, ㅆ, ㅉ/로 바뀌는데, 이 경음화 규칙은 말토막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 이완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의존명사가 나오면 의존명사의 첫 장애음은 필수적으로 경음화된다(Y.M.Yu Cho 1987).

- (7) 할 것을[할 께슬], 갈 데가[갈 떼가], 할 바를[할 빠를]

그러나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 이완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자립명사가 올 때, 관형어와 명사가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면 명사의 첫 자음이 경음화되지만 관형어와 명사 사이에 말토막 경계가 오면 명사의 첫 자음은 경음화되지 않는다.

- (8) ㄱ. 먹을 밥 좀 주세요.[햏] 철수 먹을 밥 좀 주세요.[햏]
 만날 사람이 있어요.[싸람] 빨리 만나야 할 사람[사람]
 ㄴ. 끝없이 펼쳐질 세상은[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방법]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 이완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관형어나 복합어가 올 때에는 관형어나 복합어 앞에 말토막 경계가 부과되기 때문에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 이완 장애음으로 시작하는 대등구가 올 경우 관형어가 대등구의 첫 번째 명사만을 수식할 때는 관형어와 첫 번째 명사가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경음화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만 대등구 전체를 수식할 때는 관형어와 대등구 사이에 말토막 경계가 부과되므로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H.Y.Kim 1990 참조).

- (9) ㄱ. 줄 그 돈[그], 살 세 집[세]
- ㄴ. 줄 겠돈[겠돈], 살 뒷집[뒤집], 먹을 국밥[국빔]
- ㄷ. 줄 돈과 재산[줄돈과 재산]/[줄 돈과재산]

5. 튀김 소리 되기

국어의 유음 /ㄹ/은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반모음 사이, 그리고 모음과 /ㅎ/ 사이에서 튀김 소리 [ㄹ]로 발음된다. 튀김 소리 되기 규칙도 말토막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튀김 소리 되기는 낱말 내부에서, 명사와 조사가 이어 나올 때, 혹은 낱말과 지정사 '이다'가 이어 나올 때에는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낱말과 낱말이 이어 나올 때에도 두 낱말이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면 튀김 소리 되기가 낱말 경계를 넘어 적용된다.

- (10) ㄱ. 우리, 사람, 사제, 실험[시럼], 다달이[다다리]
- 서울에서[서우래서], 서울이다[서우리다]
- ㄴ. 서울 아줌마[서우라줌마], 만날 아줌마[만나라줌마]

그러나 /ㄹ/과 모음, 반모음, 혹은 /ㅎ/ 사이에 말토막 경계나 말마디 경계가 부과되면 튀김 소리 되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 (11) ㄱ. 서울 아줌마[서울 아줌마], 만날 아줌마[만날 아줌마]
- 서울 아현동[서울 아현동], 나를 웃긴다.[나를 웃긴다]
- 나를 아주 웃긴다.[나를 아주 웃긴다]
- 아슬아슬 이겼다.[아슬아슬 이겼따]
- ㄴ. 어제 저녁에는 밥을, 오늘 아침에는 빵을 먹었다.[바블 오늘]

6. 뺏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격음화 규칙, 연음 규칙, 음성학적 단모음화 규칙,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 규칙, 튀김 소리 되기 규칙을 논의하고 말토막이 이 규칙들의 적용 범위로서 기능함을 밝혔다. 따라서 운을 음운론의 틀 안에서 말토막도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Cho, Young-Mee Yu (1987) "Phrasal Phonology of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 Harvard University.
- Cho, Young-Mee Yu (1990) "Syntax and Phrasing in Korean", in Inkelas and Zec(1990).
- Hayes, B. (1989) "The Prosodic Hierarchy in Meter", in P.Kiparsky and G.Youmans (eds.), *Rhythm and Meter*, Orlando: Academic Press.
- Inkelas, S. and D. Zec (1990) *The Phonology-Syntax Connec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H.Y. (1990) *Voicing and Tensification in Korean: A Multi-Face Approach*,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Lee, H.Y. (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Nespor, M. and I. Vogel (1982) "Prosodic Domains of External Sandhi Rules", in H. van der Hulst and N.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Dordrecht: Foris.
- Nespor, M. and I. Vogel (1986) *Prosodic Phonology*. Foris, Dordrecht.
- Selkirk, E. (1978) "On Prosodic Structure and Its Relation to Syntactic Structure", in T. Fretheim (ed.), *Nordic Prosody*, Vol. 2, Trondheim: TAPIR.
- Selkirk, E. (1980) "Prosodic Domains in Phonology: Sanskrit revisited", in M.Aronoff and M.-L.Kean (eds.), *Juncture*, Saratoga, CA: Anma Libri.
- 이호영(1992) 국어의 단모음화 현상, 어문교육 제1집, 부산수산대학교 어학연구소.
- 허 응(1982) 국어 음운학, 중판, 정음사